

## 특별좌담

'93 제과부문 기능장 합격자와 함께

# 업계의 보배 「빵 박사」 탄생

간담회 참석자/무순

이경식 본회 부회장/독일빵집 대표

서정웅/나폴레옹과자점 기술상무

박찬희/크리스탈제과점 기술상무

장복용/마산 코아양과 기술상무

김봉수/김스컨설팅 대표

● 사회 홍성대 부장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실시된 국가기술 자격 기능장 검정에 서정웅, 박찬희, 장복용, 김봉수 씨등 업계 기술인 4명이 합격하였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10년이상, 비소지자는 16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아야만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기능장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한 업소의 전 생산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빵박사'임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능장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올해가 2회제라는 짧은 역사와 홍보부족으로 인한 세인의 인식부재, 그리고 아직 국가인정 자격증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업

계 풍토상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1월 13일 4명의 기능장 합격자와 본지가 가진 간담회에서는 기능장에 대한 인식제고와 수검자 입장에서 본 출제상의 문제점, 그리고 기술향상을 위한 업계 풍토개선의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능장 검정 이론문제의 난이도와 실기검정에서 교사장 시설미비 등 응시자 입장에서 느낀 수검상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우리 업계의 이론 교재 부재의 심각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한편 이직과 전 직장의 폐업 및 설립 전환 등으로 경력 증명서류 구비과정에서 많은 응시자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별지 서식 조항에 의거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령 또는 관허, 관인에 의하여 설립된 동업자, 동직자 단체의 확인서', 즉 우리 협회가 인정하는 확인서로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정리·계재한 것이다.

**사회** 우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업계 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안되는 것은 없다고 믿는 만큼 많은 기술인들이 도전해서 좀더 많은 기능장들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장복용** 솔직히 합격증을 받고 몇년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누군가에게 자꾸 자랑을 하고 싶는데 글썄 기능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군요. (웃음)

**박찬희** 20년전 제과학교 시절에 공부를 한 이후 몇십년만에 이론 공부를 하자니 '만학'이 무엇인지 실감이 나더군요. 그러나 그만큼 해냈다는 기쁨도 큰 것 같습니다.

**김봉수** 합격의 기쁨을 업계의 모든 선

자가 많이 나와 이론 공부에 체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정웅** 저도 학교, 학원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원들끼리 서로 정보도 나누고 격려도 해주게 큰 힘이 됐고요.

**김봉수** 이건 에피소드인데, 5월달부터 과기회내에서 기능장 시험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장상무님은 휴여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할까 술도 한동안 자제하며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산모임에서는 새벽 1시가 넘도록 서상무님이 구석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 경 식**

본회 부회장 독일빵집 대표



**박 찬 희**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연수반 1기 수료  
 뉴욕제과 근무('67년~'76년)  
 명보제과 근무('76년~'84년)  
 김충북과자점 근무('84년~'92년)  
 現 크리스탈제과점 기술상무('92년~)



**서 정 웅**

일본 과자전문학교 졸업(90년)  
 일본 제빵연구소(J.I.B.) 졸업(91년)  
 청자당, 보리수제과 풍년제과 등 근무  
 現 한국제과우수기술자연구협의회 회장  
 現 나폴레옹과자점 기술상무

술인의 정상에 도달하신 내분께 이경식부회장님께서 당부와 격려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근로의식과 장인정신이 업계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되는 요즘 내분 기능장의 탄생은 업계에 밝은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디 업계발전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사회** 기능장 합격은 주위사람들의 기쁨임과 동시에 합격자 본인들에게는 큰 영광일 줄 압니다.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서정웅** 많은 기술인들이 합격하지 못해

후배들께 돌리고 싶습니다. 높은 산을 등산할 때 흘린 땀만큼 보람이 크듯 기술인의 최고봉인 기능장에 합격한 기쁨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 다들 현직에서 종사하고 계셔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기능장 시험에 도전하는 다음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셨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용** 교재는 제과학교 흥행홍 교장 선생님의 <제과제빵사 시험>과 작년도 합격자들로부터 입수한 92년 시험문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끼리도 서로 혼동되고 오답이 많았습니다. 우리 업계에도 기술관련 책

다들 대학입시 수험생처럼 열심히 공부하신걸로 압니다.

**사회** 교재가 없어 힘들었다는 장복용씨 말에서 며칠전 열린 '93 SIBA에서 책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한 수상자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선배들대에 못이렸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이며 바로 월간 베이커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능장 시험이 작년에 처음 실시돼 수검자들이 겪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서정웅** 제 경우 1·2급 기능사 자격증이 없어 16년 경력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겨우 2회째다 보니 출제빈도를

알 수도 없고 실기시험자인 실기고사장의 시설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박찬희** 지도 전에 일한 직장이 법인으로 설립, 전환해 경력증명을 페너라 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의 배합비가 그대로 출제돼 실기에서 실력 발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데블스푸드를 만들때는 물을 배합비보다 적게 넣었으니까요.

**이경식** 역설적이지만 어려운 시설과 장비에서도 적절히 대응,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게 바로 기능장이 다른 기술인보다 월등한 면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김봉수** 작년에는 두 문제에 불과했던 계

제시되는 요즘 기술향상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D현상을 국민 탓으로 돌릴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기술인들을 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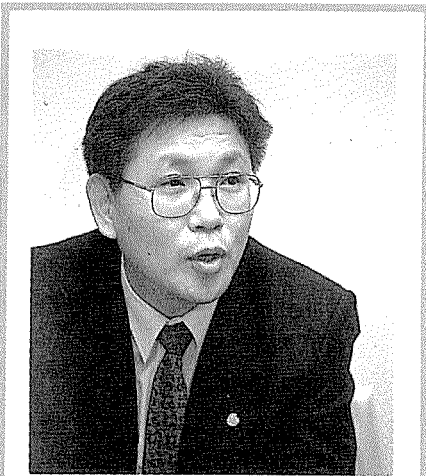
**김봉수** 서상무님이 3D현상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력보다는 기술을 인정해주고 우리업계에도 국가 인정자격증을 우대해주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장을 우대하고 기능장들의 기술을 인정해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희** 제도적인 보장도 문제이지만 기

터 한대를 장만했습니다.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생산기록과 제품 배합비 등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해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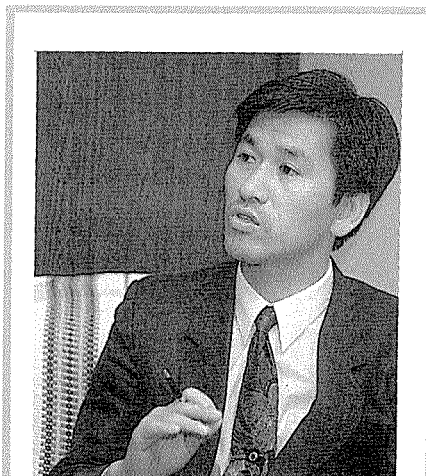
**박찬희** 제 계획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힘껏 후진 양성을 위해 힘쓰고 싶습니다.

**김봉수** 우리 업계의 기술도 이제는 일본이나 유럽의 모방 단계를 넘어 개발·창조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물론 북한에도 제과제빵기술을 전수할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면에도 미리 대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웅**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연수반 16기 수료  
일본 과자전문학교 화과자반 졸업  
부산뉴욕제과 근무('69년~'79년)  
現 마산 코아양과 기술상무('79년~)



**김봉수**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졸업('75년)  
뉴욕제과 근무  
유니온무역상사 근무('87년~'91년)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졸업('91년)  
경영지도사 자격 취득(상공부 1803호)('92년)  
現 김스컨설팅 대표

**“3D 현상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기능인에 대하여는 정부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제과계의 기술도 일본·구라파의 모방 단계를 벗어나 개발·창조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산 문제가 올해는 50%에 달해 많은 응시자들이 고전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출제 문제간에 괴리도 분명히 있고요.

**사회** 어렵게 ‘빵박사’라고 할 수 있는 기능장이 되었는데 기능장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나 사회적 특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서정웅** 글썩요. 어떤 특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합격증서를 받으러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갔다가 타직종 기능장의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나마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더군요. 어떤 특전 때문에 기능장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3D현상이 문

능장 시험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전무한 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장상무님이 기능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하셨는데 기능장 시험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고 교재도 많이 출판돼 응시자가 늘면 그만큼 업계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사회** 회를 거듭하면서 이후로도 기술개발과 기능장 시험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 지리라 기대해봅니다. 이제 인내와 노력으로 기술의 정상에 서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장복웅** 이번 '93 SIBA때 코엑스에서 같이 열린 장애인 용품 전시회에 들러 컴퓨

니다.

**서정웅** 요즘 가장 괴로운 일이 주위에서 언제 개업하느냐는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인은 평생 기술인으로 기술향상에 매진하고 경영인은 그러한 기술인을 양성해 꾸준히 지지해 주는 업계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개업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일 내 가게를 갖게 된다 해도 결코 일손을 놓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남들이 그러는데 기술인이 사장이 되면 어쩔수 없는데... 글썩요, 저는 평생 기술인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사회**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